

가치있는 '문화적 환상'에의 도전

문화전략으로서의 출판도시

이중환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한국출판문화 산업단지계획案은 한마디로 '환상적 도전'이다. 그러나 이 '환상적 도전'은 상당히 많은 분량의 '현실적 도전'의 부분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꿈꾸는 역량과 도전의 규모가 이제는 이만한 크기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또 이를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신념의 구축만으로도 이 도전은 문화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때문에 이 案은 출판영역에서만 도전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이 案의 성과와 관계 없이 이러한 도전 자체가 우리 문화의 전반적 기반에 신선한 창조적 자극제로서 활력적 영향을 주는 것만으로도 전체 문화에 의미획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능한 이 도전이 환상을 뛰어넘어 현실이 되게 하는 여러 노력과 그 과정 자체가 문화의 전략으로서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무엇보다 기본 관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연관산업의 입장 충분히 고려되어야

그러나 현단계의 안으로서 상당한 단선적 출발점에서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출판의 모든 과정이 함께 모인다는 것이 이 발상의 핵심적 목표가 되는 셈인데, 그러나 이것이 출판과 출판경영인의 입장에서만 접근되고 있고 연관산업이나 연관거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선적이다. 예컨대 제본업이나 창고업의 경우는 출판과의利害가 직결되어 있으므로 쉽게 호응할 수 있다. 그러나 제지업이나 인쇄업의 경우는 상호교류되는 작업량이나 또는 자기 자신의 작업량 규모에 따라서 단지에의 입주가 꼭 합리적인 것이냐는 별도의 문제이다.

출판연관산업의 총집합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출판연관산업들의 부문별로 보면 그 각 부문이 별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인쇄부문만 하더라도 출판의 發注力量에 따라 인쇄역량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 나름대로의 발전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따라서 출판산업단지에 들어선 출판업의 요구에 적합한 각부문별 입지라는 것이 무엇이나를 우선 측정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지만 50만평이든 100만평이든 그 절대용지의 위치가 독립된 단지나 또는 어느 도시지역의 한 부분으로서의

출판도시 계획은 한마디로

'환상적 도전'이다. 이 도전이 환상을

뛰어넘어 현실이 되게 하는 노력과

과정 자체가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여기엔 어느 항목이 어느 시간에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정밀하고도 철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런 작업만으로도

문화의 結實일 수 있을 것이다.

단지나에 따라 기본적 구도를 전혀 다른 성격의 것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한부분일 때는 더욱 출판만의 기능적 요구에 적합한 집합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출판박물관 · 출판자료관 · 출판예술학교 등의 공공문화적 발상이 있다. 그러나 이 항목은 별도의 타당한 조건의 전제와 여건의 조성으로써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출판산업 단지의 기능적 집합의 영역과는 별도의 영역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국 출판문화산업단지 案의 초안은 기능적 단지나 문화적 단지나 기본이념을 좀더 분명히 해야만 그 구도의 선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살아 있는 '박물관 도시'로 발전시켰으면

이 관점에서 출판문화산업단지는 문화의 의미를 상위로 하는 가칭 '출판문화도시' 또는 '출판문화박물관도시'의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렇잖아도 오늘의 박물관 개념은 유물보존이나 전시의 영역을 넘어서서 오늘의 삶에 살아 있는 문화 센터로서의 발전을 하고 있다. 이 개념에 적용하자면 출판박물관만이 박물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출판산업단지 전체를 박물관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출판행위 모두를 박물관 프로그램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 도시는 출판인들이 출판 작업만을 기능적으로 하는 도시가 아니라 이 기능적 작업까지를 포함해서 이 도시 전체가 전국민이 와서 특별하게 보고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서 변화되고, 이 가치에 의해 출판산



이중환씨

업의 기반이 보다 크게 확산되는 본질적 발전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출판문화박물관으로서의 도시의 창조는, 만일 가능하다면 세계에서 최초의 창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때 이 도시 창조에 보다 공공적인 지원도 그 합리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초안에 들어 있는 박물관과 자료관은 그 내용범위를 세계의 출판으로 확대시키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당위가 될 것이다.

案에 들어 있는 여러 개의 개별적 목표들이 실제로 실현되는 각기 다른 소요기간과 소요예산의 창출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적절히 연계구성되느냐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도전의 과제이다.

현재로서 보자면 출판사가 사용할 오피스빌딩과 창고건물과 그리고 종사자용 아파트 등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먼저 실현되고 그 이외의 項들이 적절한 時差를 넘어 불확실하거나 지연될 때 이 단지의 지향은 급격히 퇴색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느 항목이 어느 시간에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정밀하고도 철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보다 문화적 접근을 하게 된다면, 또 당연히 출판박물관이나 출판자료관 또는 도서 견본시장 건설 등이 동시이거나 먼저 이루어져야만 그 입지가 분명하게 될 것이다. 각 항목별로 상호보완성, 상호유인성, 상호가치성들이 等價의 일 때에만 이 계획이 성공될 것이라고 본다면 출판은 출판연관산업의 추이를 좀더 과학적으로 예측해야 한다는 부담도 갖고 있다.

이제는 뉴 미디어의 시대에 들어서 있고 따라서 출판 자신도 뉴 미디어 속에서의 출판 미디어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고전적 가치나 고전적 형식의 출판지향으로서의 한 도시 규모의 출판의 유효성을 公衆적으로 설득한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역시 설득커뮤니케이션적 중요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현실의 사이

건축측면에서의 도전은 완전히 또다른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산업단지의 건축이 아니라 문화단지의 건축이다. 따라서 도시규모에서의 기능적 배치나 기능적 용량의 합리적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로서의 건축 그 자체의 문제이다.

이 경우 인간의 주거환경으로서의 이상적 접근이 요구될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이나 작업장이 들어설 수도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갖고 있다. 하기는 이러한 요구가 도전만으로서 보면 도전의 규모 자체를 화려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무실, 주거공간, 작업장, 박물관, 자료관, 캠퍼스, 편익시설들의 복합체계로서의 단지는 환경설계에 있어 최대의 難題인 것만은 사실이다.

더욱이 이 案에는 개별 출판사들의 개별 건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점은 별도로 개별 건축이면서도 그 건축의 도시로서의 복합적 평가를 거치게 하는 기능을 갖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 도전을 함으로써만 우리는 이 案을 문화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案은 스스로가 문화전략으로서의 의미와 과제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성격을 만들어 가야 할 요구도 갖고 있다. 출판 자신의 기능적 결합만을 우선시할 때 당연히 문화전략적 차원과는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사회적 문화적 지원의 형식도 바뀌게 마련이다.

오늘에 있어 문화적 환상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일 수 있다. 문화적 환상은 과학적 환상보다 可視的이다. 단지 문제는 문화적 환상에의 도전을 누가 얼마나 이해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 이 理解度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즉물적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다. 이것이 가장 非可視的인 벽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도전에 나서보자. 무엇보다 마스터플랜 작성이라는 작업만으로도 문화의 結實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